

사람에의 호소는 오류인가?

최훈(세종대)

【요약문】 많은 논리학 교과서들은 정치 현장과 언론의 정치 비평에서 자주 쓰이는 사람의 호소 논증을 오류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에 호소하고 있다는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논증의 주장이 그 사람 자신에 관한 것이라면 오류가 아니다. 또 그 논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맥락과 논증이 비판하고 있는 사람의 가치관 등을 모두 검토해서 오류인지 아닌지 평가해야 한다.

【주제어】 오류, 사람에의 호소, 인신공격, 논증 평가, 정치 비평, 맥락

1. 머리말

사람에의 호소는 라틴어로 ad hominem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을 향해서'라는 뜻이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이 내세우는 주장이나 이론을 향해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향해 공격할 때 사람에의 호소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논증을 누가 했느냐는 그 논증의 성공 여부와 관련이 없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주장 자체는 갈릴레이가 하든 이순신이 하든 가룟 유다가 하든 내 짝꿍이 하든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의 인간성·배경·행적·정황에 의존해서, 곧 거기에 호소해서 그 주장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 오류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 ① x는 P라고 주장한다.
- ② x는 F라는 특성을 지닌 사람이다.
- ③ 따라서 P는 틀렸다.

그러나 전제 ②는 주장 ③ 자체와 관련이 없다. ③을 주장하기 위해서 관련 있는 다른 증거를 내세우지 않는 이런 논증은 오류이다.

사람에의 호소 논증은 정치 현장과 정치 보도에서, 특히 선거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의 도구로 자주 쓰인다. 많은 논리학 교과서들이 사람에의 호소를 오류로 소개하고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네거티브 캠페인, 특히 사람에의 호소의 대표적인 사례인 인신공격에 의한 논증을 개탄한다. 그러나 사람에의 호소는 언제나 오류인가? 인신공격은 언제나 나쁜가? 나는 “무지에의 호소는 오류인가?”에서 무지에의 호소 논증(argumentum ad ignorantiam)¹⁾은 항상 오류라고 할 수 없으며, 언제 오류가 되느냐는 형식적인 조건에 의존하기보다는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논증이 제시되고 있는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에의 호소는 언제나 오류인 것은 아니며 그 논증을 누가 제시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제시하는가와 같은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고서 오류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

2. 사람에의 호소 논증의 종류

사람에의 호소는 위 논증 구조에서 F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뉜다.³⁾ 첫번째는 인신공격성 사람에의 호소(the Abusive Ad Hominem)

1) 『논리연구』, 제5집 2권, 133-151쪽.

2) 익명의 심사위원께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해주셨다. “임의의 주장이나 진술의 의미나 실제 그것의 참, 거짓이 문맥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이미 프레게부터 전제되어온 것이다. 평자의 생각으로는 사람에의 호소가 오류라고 할 때 (적어도 진술의 의미를 놓고 볼 때) 그것이 문맥적으로 그렇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평자는 이것이 왜 논문의 주제로 다루어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지적에 감사드리며, 두 가지 답변을 드린다. 첫째는 특정 진술이 오류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심사위원의 지적대로 당연한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현재 많은 논리학 교과서들은 그 당연한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논문은 그것을 새삼스럽게 환기시키고 바로 잡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는 나와 심사위원 사이에 문맥적인 결정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 같다. 프레게가 문맥의 원칙은 단어의 의미를 그 자체 고립시켜 탐구하지 않고 명제의 문맥 속에서만 탐구한다는 것이지, 진술들이 어떤 사회적인 맥락에서 진술되었는가, 화자는 어떤 의도로 그 발언을 하였는가, 화자는 어떤 배경의 사람이냐 등까지 고려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프레게는 바로 그런 시도는 이른바 ‘심리주의’라고 배격하고 논리학을 개인이나 사회와의 관련을 끊게 만든 장본인이 아닌가? 특정 오류를 구체적인 쓰임의 문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나의 주장은 오히려 프레게가 반대했던 반프레게적인 시도이다.

인데,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 그러니까 나이·성별·인종·국적·직위 그리고 신용도 등에 의존해서 그 사람의 주장을 공격한다. 개인적인 공격은 나쁘다고 생각되는 특성이나 신용도가 없다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나이가 어리므로', '여자이므로', '~ 출신이므로', '~한 적이 있으므로',... 내 주장은 틀렸다고 말하는 식이다. 다음이 이 오류의 예들이다.

보기 1.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틀렸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보기 2.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중에 IMF를 불러왔기 때문에 그의 사회 숙청과 금융실명제 실시는 실패한 정책이다.

이 오류는 특히 우리 사회에서 자주 저질러진다. “네까짓 게 뭘 알아?”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여자 주제에...” “이 빨갱이 놈이!” 모두 건전한 토론 문화를 가로막는 주범이다. 특히 나이, 출신 지역, 학력 등의 개인적인 특성을 들어 다른 사람의 주장을 공격하는 것은 외국의 논리학 교과서에는 이 오류의 예로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자주 저질러진다. 도대체 주장하는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고 출신 지역이 어디고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가 그 사람의 주장이 옳고 그른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논쟁을 하다가 막히면 “너 나 이 몇 살이야?”, “똥통 학교 나온 주제에”란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다.⁴⁾

사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이중의 오류이다. 무슨 말이나면 설령 논증한 사람의 나이, 성별, 인종 등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논증 자체로 옮겨가지 않는다. 그런데 나이·성별·인종 등에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인가? 나이가 어리다는 것, 여자라는 것, 외국 사람이라는 것은 과거에 거짓말을

3) 이 구분은 박정하·장은주·최훈, 『대학인을 위한 논술-이론편』 (세종서적, 2002), 129~132쪽에 근거하고 있다.

4) 진중권은 '나이에의 논증의 오류'를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토론과 논쟁의 문화를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오류로 들고 있다. (『시칠리아의 암소』, 다우, 2000, 219~220쪽.) 그런데 그는 이 오류를 '권위에의 논증'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데 나는 '논점 이탈의 오류'의 한 가지로 본다.

한 적이 있다는 것과는 달리 전혀 부정적인 고려 사항이 아니다. 고쳐야 할 고약한 버릇이다. 이 오류는 발생적 오류라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다. 주장이 발생한 원천에 있는 결점 때문에 주장 자체가 결점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두번째 종류의 사람에의 호소는 정황적 논증(the Circumstantial Ad Hominem)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처한 정황 또는 상황에 의존해서 공격한다. 이 공격은 주로 상대방의 정황과 주장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함으로써 이루어지거나, 또는 상대방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공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음 보기 3이 앞의 사례이고 보기 4는 뒤의 사례이다.

보기 3. 거리에 침 뱉는다고 야단치는 노인에게 “할아버지는 거리에 침 뱉은 적 없어요?”라고 대꾸한다.

보기 4. 급여 동결을 주장하는 사장에게 사장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보기 3은 피장파장의 오류(the *Tu Quoque*)라고 기억하면 더 편리할 것이다. 어떤 주장을 그 내용과 관련된 정당한 근거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 주장에 담겨 있는 것과 같은 잘못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럴만한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할 때는 피장파장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다. 보기4는 우물에 독푼기(Poisoning the Well)라는 재미있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돈을 잘 버는 사장이라는 정황에 편견을 부여함으로써, 곧 우물에 독을 풀으로써 사장이 하는 무슨 말이든 의심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아예 무슨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에의 호소를 이루고 있는 여러 오류가 교과서마다 그 구분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위에서 사람에의 호소를 인신공격성 오류와 정황적 오류로 구분하였고 정황적 오류는 다시 피장파장의 오류와 우물에 독

풀기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의 논리학 교과서들은 이 오류를 약간씩 다르게 분류한다. 코피(Irving M. Copi)와 코헨(Carl Cohen)의 『논리학 입문』⁵⁾은 나의 분류와 일치한다. 정해창 교수의 『고등학교 논리학』⁶⁾와 정대현 외의 『논리교실 필로지아』⁷⁾ 그리고 데이머(T. Edward Damer)의 *Attacking Faulty Reasoning*⁸⁾은 인신공격성 오류, 정황적 오류, 우물에 독풀기의 세 가지 오류를 대등하게 분류하고 있다. 김광수 교수의 『논리와 비판적 사고』⁹⁾는 인신공격의 오류, 정황에의 호소, 피장파장의 오류, 우물에 독뿌리기의 네 가지 오류를 따로따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하병학 교수의 『토론과 설득을 위한 우리들의 논리』¹⁰⁾는 명칭은 다르지만 김광수 교수와 똑같이 분류하고 있다. 한편 탁석산 박사는 『오류를 알면 논리가 보인다』¹¹⁾에서 '인신공격의 오류'란 이름 아래 두 가지 종류의 사례들을 소개하는데 이것들은 내가 인신공격의 오류와 우물에 독풀기라고 이름붙인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교과서마다 사람에의 호소의 분류가 다른 것은 이 논증을 명확하게 분간하고 식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정황적 논증은 인신공격성 오류의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즉 피장파장의 오류의 경우 상대방의 일관성 없음을 비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우물에 독풀기의 경우에는 어떤

-
- 5) 어빙 코피·칼 코헨, 『논리학 입문』 제10판 (박만준 외 옮김, 경문사, 2000), 166-170쪽. 코피와 코헨은 인신공격성 오류를 '욕설적 논증'이라고 부르는데, 정황적 논증은 욕설적 논증의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상대방의 일관성 없음을 비난하거나(피장파장).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할 경우(우물에 독풀기)라고 말이다.
- 6) 정해창, 『고등학교 논리학』, (교학사, 2002), 141-143쪽. 이 책은 보통 교과서에서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부르는 것을 '사람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부르고 있다(144쪽).
- 7) 정대현 외, 『논리교실 필로지아』, (오란디프, 2002), 330-333쪽. 이 책에서는 피장파장의 오류는 정황적 오류의 특수한 경우로, 정황적 오류도 넓게는 인신공격의 오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인신공격의 오류는 발생적 오류의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 8) Damer, T. Edward, *Attacking Faulty Reasoning* (4th ed.), (Wadsworth, 2001), 172-179쪽. 이 책의 2판의 일부는 『엔터리 논리 길들이기』 (김희빈 옮김, 새길)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다.
- 9) 김광수, 『논리와 비판적 사고』, 전정판 (철학과 현실사, 1995), 407-8쪽.
- 10) 하병학, 『토론과 설득을 위한 우리들의 논리』 (철학과현실사, 2000), 224-228쪽.
- 11) 탁석산, 『오류를 알면 논리가 보인다』 (책세상, 2001), 128-130쪽.

집단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사람에의 호소 논증 중에서 인신공격성 오류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종류도 다양한 사람에의 호소 오류를 훨씬 더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류를 정확하게 분간하고 식별할 수 있어야 공정한 평가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분류 작업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3. 사람에의 호소는 언제나 오류인가?

사람에의 호소는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 현장과 언론의 정치 비평에서 즐겨 사용되고 있다. 어느 나라 정치나 비슷하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네거티브 전략이 즐겨 사용된다. 우리는 몇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의 개인적인 약점을 공격하여 통치자로서의 신뢰도와 수행 능력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언론도 정치에 관한 보도와 논평을 할 때 정치인의 도덕적인 자격과 과거의 행적을 거론하는 방법을 많이 쓴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상대방 흠집 내기 위주의 네거티브 캠페인이 정치 불신과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증폭시킨다는 이유로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며 정책 선거를 하라고 요구한다. 실제로 2002년 제16대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 한 후보는 상대 후보에 대한 폭로·비방전은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다른 후보는 정당한 검증 작업은 계속 하겠다고 맞섰다. 그리고 흠집 내기 공격이 선거 결과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거티브 선거 전략과 보도 행태는 사람에 호소하는 논증이 많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의 호소가 항상 오류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보기 5. 철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집에 차가 세 대나 있다는 철수 말도 보나마나 거짓말이다.

보기 6. 사장의 이번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는 노조와 상의 없이 이번 결정을 발표했는데, 그는 어제만 해도 노조와 상의 없는 어떤 결정도 발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보기들은 사람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위 보기들을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머리말에서 말한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바로 오류로 모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오류이고 논리적인 자세가 아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의 호소를 소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사람에게의 호소를 무조건 오류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정치 현장과 정치 비평에서 이루어지는 네거티브 전략은 모두 옳지 못한 행태가 되고 만다.

코피와 코헨은 『논리학 입문』에서 “증인의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아닌 문맥도 있다고 지적한다.¹²⁾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점이 밝혀질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신뢰가 무너졌다면, 그 문맥에서 이러한 이의 제기는 오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그 증인이 과거에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부정직성이나 불성실성의 행태를 반드시 과거의 증거를 통해 밝히거나 그 모순된 점들을 폭로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 바로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문맥에서도 성격이나 자질에 관한 공격으로써는 결코 채택된 증거가 거짓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없으며, 또 그런 추론은 분명히 오류일 것이다.

코피와 코헨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그들의 지적을 예를 들어 살펴 보자.
먼저

보기 7.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12) 어빙 코피·칼 코헨, 『논리학 입문』, 168쪽.

와 같은 주장처럼 성격이나 자질을 거론해서 그 사람의 증언을 거짓으로 모는 것은 잘못이다.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언제나 거짓말만 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바로 이 증언이 거짓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¹³⁾ 또

보기 8. 저 사람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 과거에 거짓 증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와 같은 주장도 그 전제가 좀더 구체적이지만 역시 오류라고 봐야 한다. 단순히 과거에 거짓 증언을 한 적이 있다는 근거만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2002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김대업씨의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 비리 폭로가 있었다.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김대업씨의 사기 전과를 문제삼아 그의 폭로의 신빙성을 의심했지만, 그의 폭로는 사기 전과와 상관없이 옳고 그름을 따져 봐야 할 것이다.¹⁴⁾ 그렇다면 코피와 코헨의 지적에서 오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일 것이다.

보기 9. 저 사람의 지금 증언은 지난번의 증언과 모순되므로 저 사람의

13) 보기 5와 보기 7이 비슷한 경우같지만, 보기 5는 그 결론이 철수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너무 터무니 없는 경우라면 합당할 수 있다. 이 논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형식적으로 비슷해 보이더라도 어떤 맥락에서 논증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오류가 되기도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보기 7도 맥락에 따라서는 오류가 아닐 수도 있다.

14) 2002년 6월 19일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 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대업은 자신이 병무비리를 수사하는 사정기관에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여러 차례의 협박죄와 사기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하여 우리 당 대선후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2002년 8월 3일 사설에서 “김씨는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했지만, 정작 병역비리 관련 사건 등으로 여섯 차례의 전과가 있는 인물이다. 한나라당이 김씨의 배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이 같은 특이한 이력 때문이다.”라고 말하여 한나라당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그런데 재미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1999년 당시 전복지사인 유종근씨가 관련된 고관직 철도 사건에서는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이 오류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범인이 ‘필로폰 금단현상’을 일으키고, 일부 진술이 왔다갔다하는 등 황설수설하고 있다고 하나 그것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범인이 정상인이 아닌 것과 고관들이 숨겨놓은 금품을 훔친 사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1999년 4월 21일자 사설)

증언은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보기 9는 저 '사람'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증언'에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사람에의 호소 사례가 아니다. 위 이정연씨 병역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김길부 전 병무청장은 1997년 당시 이정연씨 병적기록표를 별도로 보관시켜 놓고도 국회의원들에게는 병적기록표가 파기됐다는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¹⁵⁾ 이 경우 김길부 전 병무청장의 이정연씨 병적기록표에 관한 진술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이때 김 전 청장 개인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술의 비밀관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코피와 코헨이 사람에 호소할 때도 오류가 아닌 문맥도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말한 것은 결국 사람에의 호소가 아닌 경우이고 이것은 지금 우리의 논의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또 다른 몇몇 교과서들은 증언(testimony)과 논증(argument)을 구별해서 사람에의 호소가 오류인 경우와 오류가 아닌 경우를 구별한다.¹⁶⁾ 거짓말쟁이가 증언을 하거나 의견을 말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증언이나 의견을 믿지 않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논증을 제시하고 있을 때는 단순히 거짓말쟁이의 논증이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논증은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증언은 전제 자리에 들어 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 그 전제를 받아들이고 어떤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지 그 방법을 대충이나마 알고 있다. 곧, 그 증언이 정상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졌고, 증언을 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며 편견이 없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지식과 어긋나지 않으면 그 증언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이라면 더욱 쉽게 받아들인다.¹⁷⁾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차피 그 전제인 증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따져

15) 『한겨레』, 2002년 8월 30일자 기사.

16) Damer, *Attacking Faulty Reasoning*, 172~173쪽; Bruce N. Waller, *Critical Thinking: Consider the Verdict* (Fourth Ed.), (New Prentice Hall, 2001), 181-211쪽.

17) 이 과정에 대해서는 박정하·장은주·최훈 『대학인을 위한 논술·이론편』, 99-102쪽을 보라.

보는 과정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증언 그 자체보다는 증언을 한 '사람'에 의존하는 과정이 끼어드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호소한다고 해서 곧바로 오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증언과 논증의 구분에 따른 오류 평가도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4. 논증 평가의 일환으로서 오류 평가

사람에의 호소 논증을 일단 오류의 하나로써 소개하고 접근하는 것은 이 논증에 대해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다른 오류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논증이 사람에게 호소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면 먼저 오류라고 평가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오류에 대한 접근은 오류의 한 종류로서보다는 논증 평가의 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이나면 어떤 한 논증이 오류의 목록에 나오는 어떤 형식을 띠고 있느냐를 찾기보다는 그 논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오류라는 것은 부수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짜고짜 오류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의 호소 논증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논증이 좋은 논증인지 안 좋은 논증인지,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논증인지 거부해야 하는 논증인지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오류를 소개해야 한다. 나는 「대학인을 위한 논술-이론편」에서 다음과 같이 논증 평가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1. 전제들이 받아들일 만한가? 전제들이 믿을 만해야 한다. 전제가 설사 확실하게 참이라고 알려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제들이 거짓이거나 의심스럽다고 생각할 만한 증거가 없어야 한다.

2. 전제들이 결론과 관련성이 있는가? 전제들이 결론과 관련 있어야 한다는 말은 결론의 참을 옹호하는 증거를 적어도 약간이나마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전제들은 결론을 증명한다고 간주되는 증거나 이유 등을 말해야 한다. 전제들은 논증이 다루고 있는 주제와 상관 없거나 벗어나 있는 측면을 기술해서는 안 된다.

3. 전제들이 결론의 충분히 강한 증거가 되는가? 전제들은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 말은 전제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이다. 전제들은 결론에 대한 증거로 간주되는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증거 또는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¹⁸⁾

사람에의 호소는 이 중에서 두 번째 기준, 곧 전제가 결론과 관련성이 없을 때 오류로 간주된다. 논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인간성·배경·행적·정황 등은 주장의 옳고 그름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머리말에서 말한 사람에의 호소 논증 구조에서 보면 ②가 ③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정황이 그 사람의 주장과 관련이 있다면 오류가 아닐 것이다. 다음은 한 정당 대변인의 논평이다.

보기 8. 정 의원이 안기부 수사국장 당시 서경원 전 의원을 직접 고문한 것이 사실이라면 유엔 인권위에 근접할 자격은 물론, 꿈에서도 인권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¹⁹⁾

이 논증의 결론은 정 의원 자신에 대한 것이므로 전제는 그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인신공격의 오류라고 말하면 안 된다. 3절 끝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증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증언을 하는 사람이나 전문가의 배경·경험·신용도 등 개인적인 특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특성이 그들의 의견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특성이나 정황에 호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류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기 2를 다음과 같이 바꿔보자.

보기 9.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중에 IMF를 불러왔기 때문에 실패한

18) 『대학인을 위한 논술-이론편』, 90-91쪽.

19) 『한겨레』, 1999년 4월 15일.

대통령이다.

이것은 사람에의 호소는 맞지만 오류는 아니다. 이 논증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개인적 특징에 의존해서 김 전 대통령의 주장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김 전 대통령 자신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IMF를 불러왔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기껏해야 개연성이 낮은 논증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오류라고 보기는 힘들다. 요약하면 사람에의 호소가 오류인 경우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바꾸어야 한다.

- ① x는 P라고 주장한다.
- ② x는 F라는 특성을 지닌 사람이다.
- ③ P는 x에 대한 주장이 아니다.
- ④ 따라서 P는 틀렸다.

사람에 호소했다고 하더라도 논증의 주장이 그 사람 자신에 관한 것이라면 오류가 아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배경·정황 등이 주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에의 호소 논증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람에의 호소 논증을 하나의 논증 형식으로 간주하고, 논증 하나하나마다 사람에 호소하는 전제들이 결론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사람에 호소하고 있다는 그 형식만 가지고서 오류라고 평가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며 또 하나의 오류라고 말할 수 있다.

5. 구체적 맥락에서 오류 평가

사람에 호소하는 논증이라고 해서 언제나 오류인 것은 아니다. 논증의 주장이 사람 자신에 대한 것이라면 사람에 호소한다고 해도 오류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틀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가령 탁석산 박사는 인신공격성 오류의 예로 다음을 들고 있다.

보기 10. 고길동은 첩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까지 두고 있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고길동을 국회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고길동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²⁰⁾

이 논증은 개인적인 특성이나 정황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호소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고길동의 사생활이 고길동의 국정 수행능력과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2002년도의 국무총리 인준을 위한 청문회나 대통령 선거에서도 드러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에게 일반인들보다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요구한다. 일반인의 감정만 그런 것은 아니다. 2003년 1월에 대법원에서 “부인과 자녀가 있는 원고가 5년간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딸을 낳는 등 부도덕한 행위로 물의를 빚은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정상참작을 해도 경찰관의 직무특성 등에 비취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²¹⁾ 경찰관의 외도는 공직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 예는 오류가 아니지 않을까? 아니면 일반인과 대법원의 그런 시각은 편견에 불과하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주장은 분명히 오류일까?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또 “누가 누굴 개혁하나”²²⁾와 “누가 누굴 검증하나”²³⁾라는 신문 칼럼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비판자의 도덕적인 자격과 과거의 행적이 비판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서로를 공격한다. 그래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사돈 남 말하고 있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라는 말도 설득력 있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논리학 교과서는 어떤 주장을 그 내용과 관련된 정당한 근거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 주장에 담겨 있는 것과 같은 잘못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럴만한 자격이 없다는 이

20) 『오류를 알면 논리가 보인다』, 117쪽.

21) 『한겨레』, 2003년 1월 9일.

22) 『조선일보』, 2001년 9월 22일자 김대중 칼럼.

23) 『한겨레』, 2002년 8월 13일자 김효순 칼럼.

유로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할 때는 피장파장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판을 할 때 상대방의 도덕적인 자격과 과거의 행적을 전혀 거론할 수 없는가? 거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일까? 이 평가 기준이 성립되어야 올바른 정치 비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제의 관련성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오류임을 밝혀내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²⁴⁾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일 가능성을 높이는지 물어 보면 된다고 하지만 그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 라고 대답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성을 알아내는 한 가지 방법은 논증이 제시되는 구체적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다. 순전히 물리학의 법칙에 대해 논의하는 과학 논증에서는 사람의 성격이나 정황이 차지할 자리는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보기 1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논쟁에서는 사람의 성격과 진실성은 관련이 아주 깊을 수 있다. 보기 10을 다시 생각해 보자. 여기서는 정치 운동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어느 선까지 언급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서 후보의 성도덕과 여타 사생활이 공직의 수행성과 관련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여기서 문제는 의도를 했다는 사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느냐가 아니다. 일단 그 후보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전제는 참이라고 받아들이고²⁵⁾ 그 전제가 후보의 공직 수행 능력과 관련이 있느냐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이런 문제를 따져보지 않고 이 주장을 인신공격성 오류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논리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런데 후보의 사생활이 공직 수행 능력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괄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 그 후보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다. 만약 이 후보가 가족의 가치에 대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거나 그런 것을 공약으로 삼는다면, 그의 의도는 공직 수행 능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행동과 발언의 불일치는 그의 공직 수행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

24) 전제의 관련성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는 「대학인을 위한 논술-이론편」, 124-127쪽을 보라.

25)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제된 흠집 내기 공격들은 그 전제들의 진실성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 이에 비해 우리의 관심은 전제들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결론과 관련이 있느냐는 것이다.

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 후보의 외도가 그의 부인에게 숨기는 것이었다면 그것도 후보의 진실성이 의심을 사게 하는 것이다. 탁석산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첩이 있는 것과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 사이에 무슨 상관성이 있는가?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대통령궁 안에 첩을 두고 몇 년을 같이 지냈지만 프랑스 국민은 상관하지 않았다. 그것은 미테랑의 사생활이고 대통령 직무 수행과 무관했기 때문이다.²⁶⁾

미테랑 대통령의 경우는 그가 평소에 외도에 대해 관대했다면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의 외도를 문제 삼아 그를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테랑의 경우를 일반화해서 모든 정치인의 사생활이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²⁷⁾ 평소에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보 의식을 강조한 정치인이 막상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민족의 단결을 강조하는 정치인의 가족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획득하는 등 일관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그 정치인의 신뢰성 나아가서 공직 수행 능력을 의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²⁸⁾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옛말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이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의 사생활인가, 지금 논의되는 주제가 무엇이나에 달려있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번에는 피장파장의 오류의 예를 보자.

26) 『오류를 알면 논리가 보인다』, 117쪽.

27) 미테랑 대통령과 그의 내연의 처 안 팽조와 딸 마자린의 이야기는 고종석, “대통령의 두 가족”, 『서얼단상』 (개마고원, 2002), 195~227쪽에서 볼 수 있다.

28) 이런 점에서 다음 칼럼은 일리가 있다. “안보의 첩병 김용갑 의원님. 그런데 일각에 해괴한 소문이 떠돌고 있대요. 마땅히 공수특전대 정도는 나왔어야 할 의원님의 자제분들께서 병역면제라나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나라 안보주의자들은 참 이상해요. 가령 안보 팔아 장사하던 『조선일보』 사장님. 살이 너무 찌서 안 갔대요. 안보란 안보는 혼자 지키는 듯 설레방 떠는 한나라당 총재님. 그 분의 자제분들은 너무 말라서 안 갔대요. 안보의 첩병 김 의원님. 맥의 자제분은 왜 안 갔대요? 몸무게가 너무너무 지나치게 정상이라서?” (진중권, “‘안보의 첩병’ 김용갑 의원께”, 『한겨레』, 2002년 8월 13일)

보기 11.

아버지: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감기에 잘 걸리며 성
기능도 약화된다. 건강에 안 좋아. 담배 안 피우는 사람보다 10
년은 일찍 죽어. 그리고 사람도 피죄죄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싫
어하고 화재 위험도 커. 담배를 피우면 안 돼.

아 들: 그치만 아버지도 담배 피우시잖아요?29)

대부분의 논리학 교과서는 이 대화에서 아들은 피장파장의 오류를 저지르
고 있다고 말한다. 아버지의 주장의 근거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
지의 주장과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있음을 지적하는 방법을 통해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들의 대꾸는 정말로 오류라고 보아야 할까? 이것은 아
버지의 주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 아버지의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아버지가 “담배는 해롭다”거나 “건강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라고 일반적인 주장을 한 것이
라면 아버지의 주장에는 합당하다고 볼 수 있고 아들의 대꾸는 오류라고 보
아야 한다. 아버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지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실
천의 의지를 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가 나도 담배 피우면 여
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의지 박약으로 담배를 끊지 못한다
거나 나는 이미 늦었으니까 너라도 담배를 피지 말아라는 의도라면 아들의
대꾸는 잘못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주장이 개인적인 주장이라면, 그러니까
“나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을 거야”라는 주장이라면 아버지
의 주장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는 아버지의 주장을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따라서 아들의 대꾸는 일리가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보기 11
이 피장파장의 오류의 사례인지 아닌지는 단번에 결정할 수 없고 어떤 상황
에서 그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29) 『대학인을 위한 논술-이론편』, 145쪽. 이런 비슷한 보기는 여러 교과서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보기에 대한 논의는 Douglas N. Walton, *Informal Logic: A Handbook
for Critical Argument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141-5쪽
을 참고했다.

대부분의 정치 비평은 이런 식이다.

A: 이리이런 점은 잘못되었다.

B: A는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없다. A도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논리학 교과서는 B의 비판을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A가 어떤 상황에서 비판을 하는지를 따져 보고서 B가 오류인지 아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A가 이리이런 점은 잘못되었다는 일반적인 주장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은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거나 앞으로도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이 암묵적으로라도 전제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후자의 경우 A의 주장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B가 지적하는 것은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못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착하게 살라고 가르친다. 곧 아버지와 자식간의 관계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행동과 주장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는 일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때는 아버지의 비밀관성을 지적하는 것이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의 경우는 다르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단순히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을 하면서 스스로는 그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은 그 비판과 무관한 심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그 게임 속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런 비판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정치인에 대해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피장파장의 오류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물론 오류가 아니라고 해서 B의 그런 식의 공격이 설득력 있는 논증 방법이라는 것은 아니다. B는 자신은 A가 공격하는 것같은 잘못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든가 또는 A가 말하는 것은 실제로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해야지, A는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한 논증일 뿐이다.

6. 맺음말

이렇게 사람의 호소 논증은 논증 하나하나마다 어떤 맥락에서 제기되었는가, 논증이 비판하는 사람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에 따라 오류가 될 수도 있고 정당한 논증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람에 호소하고 있는 정치적인 논증이 오류인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논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맥락과 논증이 비판하고 있는 정치인의 가치관 등을 모두 검토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